

노동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pp.117~147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0.20.4.005>

연구논문

대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분석 : 수도권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성표*
임한려**

이 연구는 청년들의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이해하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패널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955명(2007~11년)의 8년(96개월)간 경제활동상태 자료를 활용했으며, 집단중심추세분석과 차이분석을 사용하여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이행 집단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았다. 둘째,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계열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지방대학 인문계열 졸업생의 상용직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넷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자격취득 및 진로상담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고용시장 진입과 유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 강화, 지역의 노동시장 개선과 대학의 연계 촉진, 여성 및 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진로지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대학 소재지, 지방대학, 노동시장 이행, 집단중심추세분석

논문접수일: 2020년 7월 2일, 심사의뢰일: 2020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4일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sungpihong@gmail.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초빙교수(hrcareer@ewha.ac.kr)

I. 서론

청년고용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0.2%(2020년 5월)로 전체 실업률 대비 5.7%p가 높으며 2016년 이후 9~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센터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 문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청년 내부적으로도 성별, 대학소재지,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강순희, 2014; 유정미, 2017),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졸업생에 비해(남기곤, 2012; 오호영, 2007; 채구묵, 2007)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청년고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지역산업 및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청년의 고용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박성재, 2005; 채구묵, 2007), 임금(김희삼, 2008; 남기곤, 2012; 문성숙·노상우, 2013; 오호영, 2007; 조희숙·김안나, 2014) 등 노동시장의 진입과 성과가 낮았으며, 취업장벽(김민순·정영애, 2012), 경제적 좌절감(유지영, 2016) 등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수도권 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지방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과정을 중점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한 연구(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가 있지만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이행 궤적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지 않았으며, 연구 기간이 48개월로 단기적인

변화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졸업한 대학 소재지에 따라 단기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에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직업이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며, 지방대학 및 졸업생의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96개월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 및 비교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정이 다른지 분석하였으며, 이행 궤적 집단에 대한 성별, 전공, 자격 등의 차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집단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동시장 이행 관련 이론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이론은 인적자본론, 신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직업탐색이론 등이 있다. 인적자본론은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향상될수록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인적자본론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및 노력에 의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이 직접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임금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 2005).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에 대한 개인의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조희숙·김안나(2014)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학점, 어학연수경험과 같은 변인이 대졸자의 첫 직장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문성숙·노상우(2013)도 대학졸업평점이 취업 기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과 교육훈련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대학 입학 전 수능점수(김희삼, 2008; 오호영, 2007), 학교 소재지 및 위세(류장수, 2003; 박미희·홍백의, 2014) 등의 요인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이론은 개인의 교육훈련 투자에 따른 인적자본의 축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과정에서 구직자와 채용자의 정보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 자격 등의 특정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신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이론은 개인의 축적된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신호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신호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 위세, 대학 소재지(류장수, 2003; 박성재, 2005; 연보라·이승진·장희원, 2015; 오호영, 2007, 조희숙·김안나, 2014), 자격(박천수, 2010; 이요행·권혜자, 2009) 등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단절된 계층적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를 가진 대상의 경우 높은 임금, 정규직, 대기업 등의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의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2차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경력을 바탕으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별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임금 수준, 정규직 및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장수, 2003; 연보라·이승진·장희원, 2015; 오호영, 2007).

직업탐색이론은 신고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때 구직자의 행동을 설명한다(홍성표, 2019).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구직자는 직업 탐색을 위해 투입되는 교통, 통신 등의 직접비용과 탐색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종합한 의증임금 및 일자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제 임금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취업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직업탐색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취득의 불균형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학소재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고임금·정규직 일자리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노동시장 이행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청년, 중장년 성인, 장애인, 직업계고 졸업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배열분석 또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박미희·홍백의(2014), 박미경·김진주·정기덕·조민호(2016), 박지애·남춘호(2015), 김진주·조민호(2016) 등이 있다. 박미희·홍백의(2014)는 청년패널의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하여 ① 노동시장 미진입형, ② 상급학교 진학형, ③ 장기준비형, ④ 단기준비형, ⑤ 불안정노동형, ⑥ 상용이탈형, ⑦ 상용지속형 7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대학 위세(지방, 서울소재 중상위권)가 이들 집단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 대학의 소재지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주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석한 기간이 4년으로 장기간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생을 함께 분석하였다. 김진주·조민호(2016)는 전문대학 및 대학 미취업 상태인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했는데, 종속변인으로 월평균 소득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형화 결과 ① 니트형, ②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③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④ 노동시장 이탈형을 제시하였다. 박지애·남춘호(2015)는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했는데,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용형태 배열의 군집들을 살펴보면, ① 미취업형, ② 노동시장 퇴장형, ③ 비정규직형, ④ 불안정 정규직형, ⑤ 정규직 취업형, ⑥ 정규직 지속형, ⑦ 비임금근로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박지애·남춘호(2015)

의 연구는 각 유형별 최종학교 소재지의 분포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서울 소재 졸업생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과 장기 니트형에 소속된 비율이 많았으며, 경기·인천 소재 졸업생은 사무직 중소기업 일자리, 비수권 졸업생은 중소기업 일자리 중 블루칼라 일자리 비율이 높았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대한 유형화 연구와 함께 여성,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혜연(2010)은 고령화연구패널을 활용하여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로를 유형화했으며, 이를 통해 ① 양육 후 노동시장 진입형, ② 가사노동 지속형, ③ 가사-시장노동 병행형, ④ 노동시장 진입 후 재퇴장형, ⑤ 초기 노동시장 진입형의 5개 유형이 존재함을 제시했으며, 윤미례·김태일(2016) 또한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출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①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 ② 경력단절 후 복귀형, ③ 경력단절형, ④ 지연된 경력단절형, ⑤ 상용직 유지형으로 도출하였다. 해외에서도 Saloniemo et al.(2020)은 핀란드 초기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유형화했는데, 남성과 여성 각각 10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남성은 ① 일하는 학생, ② 근로자, ③ 일하는 아버지, ④ 공부하는 근로자, ⑤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근로자, ⑥ 실업한 근로자, ⑦ 학생, ⑧ 실업자, ⑨ 외부자, ⑩ 장애로 구분했으며, 여성은 ① 일하는 학생, ② 근로자, ③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근로자, ④ 공부하는 근로자, ⑤ 일하는 어머니, ⑥ 실업한 근로자, ⑦ 학생인 어머니, ⑧ 학업이 늦은 학생, ⑨ 불안정한 학생, ⑩ 장애가 있는 어머니로 구분하였다. Weisshaar & Cabello-Hutt (2020)는 22~50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6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① 지속적인 높은 고용유지형, ② 중간-높은 고용 유지형, ③ 늦은 노동시장 진입형, ④ 늦은 노동시장 진입 및 낮은 유지형, ⑤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⑥ 중간형으로 구분하였다. Hynes & Clarkbeg (2005)는 초기 기혼자의 경력패턴을 연구했는데 이를 통해 6개 집단을 제시하였다. ① 지속적인 이탈형, ② 낮은 간헐적 고용, ③ 출산 후 일시적 단절형, ④ 지속적인 고용 감소형, ⑤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형, ⑥ 지속적 노동시장 유지형이다. 이외에도 여성(최수정·정철영, 2010; Sun & Chen, 2017), 장애인(김재희, 2017), 중장년(민현주·이수경, 2018), 직업계고 이수자(박미경·김진주·정기덕·조민호, 2016) 등의 연구가 존재한다.

〈표 1〉 노동시장 이행과정 선행연구 종합

	대상	유형	노동시장 이행유형
박미희 · 홍백의(2014)	청년	7	① 노동시장 미진입형, ② 상급학교 진학형, ③ 장기준비형, ④ 단기준비형, ⑤ 불안정노동형, ⑥ 상용이탈형, ⑦ 상용지속형
김진주 · 조민효(2016)	대졸 미취업자	4	① 니트형, ② 느린노동시장 진입형, ③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④ 노동시장 이탈형
박지애 · 남춘호(2015)	청년	7	① 미취업형, ② 노동시장 퇴장형, ③ 비정규직형, ④ 불안정 정규직형, ⑤ 정규직 취업형, ⑥ 정규직 지속형, ⑦ 비임금근로형
Saloniemo et al. (2020)	청년 (남/여)	10	① 일하는 학생, ② 근로자, ③ 일하는 아버지, ④ 공부하는 근로자, ⑤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근로자, ⑥ 실업한 근로자, ⑦ 학생, ⑧ 실업자, ⑨ 외부자, ⑩ 장애 (남성을 예시로 제시)
Weisshaar & Cabell-Hutt (2020)	성인	6	① 지속적인 높은 고용유지형, ② 중간-높은 고용유지형, ③ 낮은 노동시장 진입형, ④ 낮은 노동시장 진입 및 낮은 유지형, ⑤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⑥ 중간형으로 구분하였다.
박미경 외 (2016)	직업계고 이수자	3	① 대졸 실업집단, ② 전문대졸 취업집단, ③ 고졸 취업집단
김혜연(2010)	중장년 여성	5	① 양육 후 노동시장 진입형, ② 가사노동 지속형, ③ 가사-시장노동 병행형, ④ 노동시장 진입 후 재퇴장형, ⑤ 초기 노동시장 진입형
윤미례 · 김태일 (2016)	출산 여성	5	①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 ② 경력단절 후 복귀형, ③ 경력단절형, ④ 지연된 경력단절형, ⑤ 상용직 유지형
Hynes & Clarkbeg (2005)	출산 여성	6	① 지속적인 이탈형, ② 낮은 간헐적 고용, ③ 출산 후 일시적 단절형, ④ 지속적인 고용 감소형, ⑤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형, ⑥ 지속적 노동시장 유지형
김재희(2017)	청년 장애인	5	① 비경제활동형, ② 비경활에서 자영업 전환형, ③ 실업·무급가족에서 비경활 전환형, ④ 자영업 지속형, ⑤ 임시일용에서 상용직 전환형
민현주 · 이수경(2018)	중고령 성인	7	① 지속이탈형, ② 일시근로형, ③ 지속자영업형, ④ 조기퇴장형, ⑤ 후기진입형, ⑥ 상용근로퇴장형, ⑦ 상용근로유지형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유형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속도, 지속성, 안정성을 중심으로 유형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상이 연구되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및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 변화와 분포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대학 소재지(수도권, 지방)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패널 2차 웨이브의 1차~12차(2007~18년) 자료를 활용했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07~11년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며, 직업력 및 교육력 자료를 활용하여 졸업 이후 8년간(96개월)의 노동시장 지위를 확인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2007년 졸업생 130명, 2008년 213명, 2009년 235명, 2010년 217명, 2011년 160명, 총 955명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 중 지방대학 졸업생은 578명,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377명이다. 자료는 결측치가 포함되지 않은 균형패널자료이다.

2. 변인 구성 및 측정

대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투입된 변인은 월별 노동시장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

행 궤적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직업력과 교육력 자료를 사용했는데, 표본별 근무시작 및 종료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월 단위로 노동시장 상태를 정리하였다. 미취업 상태(실업,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지난 1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였다. 노동시장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기준과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비경제활동인 경우 0, 실업상태 1, 비임금근로 2, 임시/일용 근로 3, 상용직 4로 구분하였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학업 상태와 순수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이후 다시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입학한 표본이 매우 적고, 개념적으로도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무급 가족 종사자도 동일한 이유로 자영업 종사자와 함께 비임금근로 지위를 활용하였다.

〈표 2〉 집단중심추세분석 투입 변인 및 측정

	변인	측정 방식
독립변수	개월	1~96개월(8년)
종속변수	노동시장 지위	0=비경제활동, 1=실업, 2=비임금근로, 3=임시/일용직 임금근로 4=상용직 임금근로

〈표 3〉 차이검증 투입 변인 및 측정

변인		측정 방식
개인 및 가구 변인	성별	여성=0, 남성=1
	연령	연속형
	전공	인문계열=1, 자연계열=2, 예체능=3
	결혼	미혼=0, 기혼=1
	가구소득(로그)	ln(연평균가구소득)
구직 관련 변인	취업 사교육	없음=0, 있음=1
	진로상담	없음=0, 있음=1
	교육훈련	없음=0, 있음=1
	자격취득	없음=0, 있음=1

다음으로 이렇게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 변인과 구직 관련 변인을 선정하고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및 가구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전공, 결혼, 가구소득을 선정하였으며, 구직 관련 변인으로는 취업 사교육, 진로상담, 교육훈련, 자격취득을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했는데, 이는 최적일치법과 유사하게 집단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전체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김혜연, 2010). 그리고 개인이 특정 유형에 포함될 확률과 해당 유형에 속한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곱을 합한 값을 바탕으로 종속변인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별 경로값과 개별 표본이 특정 유형에 속할 확률값이 도출된다. 이때 종속변인의 자료 특성에 따라 각 유형에 표본이 포함될 확률을 다르게 추정하는데, 절단정규분포, 포아송분포, 이항로짓분포 등이 존재한다(김혜연, 2010).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노동시장의 상태는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 정도에 따라 서열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절단정규분포로 추정하였다(김재희, 2017; 박미희·홍백의, 2014; 윤미례·김태일, 2016).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최적일치법을 활용한 배열분석과 비교하여 집단별 궤적을 직접 추정하고 집단의 수와 분포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박미희·홍백의, 2014; Nagin & Nagin, 2005). 배열분석은 기본적으로 군집분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출된 집단 분포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이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기간 동안 나타난 개인 (i)의 상태에 대한 종단적 배열 확률을 의미하는 $P(Y_i)$ 는 특정 집단 j에 포함될

개인 Y_i 의 확률인 $P^j(Y_i)$ 와 다항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도출되는 그룹 j 의 확률인 π_j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혜연, 2010).

$$P(Y_i) = \sum_i \pi_j P^j(Y_i)$$

위 식에서 개인이 특정 집단 j 에 포함될 확률은 시점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조사시점별 종속변수인 확률밀도함수 $P^{jt}(y)$ 는 변수 분포(포아송, 절단정규, 이항분포 등)에 따라 확률을 추정한다.

$$P^j(Y_i) = \prod_T p(y), \pi_j = e^{\theta_j} / \sum_1^J e^{\theta_j}$$

집단중심추세분석의 적합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지수인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와 $\ln(\Delta BIC)$ 값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집단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전 모형에 비해 BIC 지수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ln(\Delta BIC)$ 이 6 이상의 값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0 이상 2 미만: 기각 못함, 2 이상 6 미만: 긍정적, 6 이상 10 미만: 강한 긍정, 10 초과: 매우 강한 긍정). 또한 집단별 표본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해당 모형을 채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사용했으며, 절단정규분포와 3차 함수식을 활용하였다. 이후 대학소재지에 따른 개인 및 가구 변인과 구직 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사용하여 집단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955명의 4년제 대졸자 중 남성은

470명(49.2%), 여성은 485명(50.8%)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지방대학 졸업자는 남성 274명(47.4%), 여성 304명(52.6%),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남성 196명(52.0%), 여성 181명(48.0%)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표본에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결혼 여부는 졸업 직후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기혼자가 19명(2.0%), 미혼자가 936명(98.0%)으로 표본의 대부분이 미혼자였으며, 대학 전공은 인문계열 졸업자가 457명(48.2%), 자연계열 졸업자 412명(43.5%), 예체능 계열 79명(8.3%)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졸업자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결측치 제외). 지역적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비율에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본의 졸업연도는 2007년 졸업자가 130명(13.6%), 2008년 213명(22.3%), 2009년 235명(24.6%), 2010년 217명(22.7%), 2011년 160명(16.8%)로 연도별 100~20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2011년도에 졸업한 지방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수도권 대학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은 졸업연도 기준 24세 미만 247명(25.9%), 25~30세 미만 694명(72.6%), 30세 이상이 14명(1.5%)으로 표본의 2/3 정도가 25~30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취업 사교육 경험 여부는 경험이 있는 표본이 84명(9.9%), 경험이 없는 표본이 767명(90.1%)으로 취업 사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업 사교육을 받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졸업 직후 조사연도 기준 진로지도 또는 상담을 경험한 표본은 119명(12.5%), 경험이 없는 표본은 836명(87.5%)이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표본은 40명(4.2%), 경험이 없는 표본은 915명(95.8%)으로 지역적으로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약간 높았다.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표본은 227명(23.8%), 없는 표본이 728명(76.2%)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 사교육, 직업교육훈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격 취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득자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외 평균 가구소득은 5,061.96만 원이었으며 표준편차 2,993.623만 원이었다(표본 수 800명).

〈표 4〉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세, ln만 원)

변인		전체	지방	수도권	변인		전체	지방	수도권
성별	남성	470(49.2)	274(47.4)	196(52.0)	결혼	미혼	936(98.0)	568(98.3)	368(97.6)
	여성	485(50.8)	304(52.6)	181(48.0)		기혼	19(2.0)	10(1.7)	9(2.4)
	계	955(100)	578(100)	377(100)		계	955(100)	578(100)	377(100)
전공	인문계	457(48.2)	277(48.2)	180(48.3)	진로 상담	있음	119(12.5)	72(12.5)	47(12.5)
	자연계	412(43.5)	258(44.9)	154(41.3)		없음	836(87.5)	506(87.5)	330(87.5)
	예체능	79(8.3)	40(7.0)	39(10.5)		계	955(100)	578(100)	377(100)
	계	948(100)	575(100)	373(100)	교육 훈련	있음	40(4.2)	15(2.6)	25(6.6)
졸업 년도	2007	130(13.6)	77(13.3)	53(14.1)		없음	915(95.8)	563(97.4)	352(93.4)
	2008	213(22.3)	130(22.5)	83(22.0)		계	955(100)	578(100)	377(100)
	2009	235(24.6)	134(23.2)	101(26.8)	자격 취득	있음	227(23.8)	129(22.3)	98(26.0)
	2010	217(22.7)	129(22.3)	88(23.3)		없음	728(76.2)	449(77.7)	279(74.0)
	2011	160(16.8)	108(18.7)	52(13.8)		계	955(100)	578(100)	377(100)
	계	955(100)	578(100)	377(100)	취업 사교육	있음	84(9.9)	44(8.6)	40(11.7)
연령	25.2(2.04)	25.0(1.96)	25.5(2.12)	없음		767(90.1)	466(91.4)	301(88.3)	
가구소득(로그)	8.38(0.61)	8.32(0.59)	8.47(0.61)	계		851(100)	510(100)	341(100)	

2.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대학 졸업 후 8년간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했다. 이행 궤적의 추정에는 3차 함수를 사용했으며, 1집단 모형에서 시작하여 집단 수를 증가시키면서 BIC 지수의 감소, ln Δ BIC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7개 집단일 때 6개 집단과의 ln Δ BIC 값이 9.062로 6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집단의 표본 비율도 모두 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개 집단인 경우 수렴되는 적합 모형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8개 집단 모형에서는 1집단과 4집단의 표본 비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7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표 5〉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모형 적합도 결과

	BIC	ln (Δ BIC)	집단 비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집단
1 집단	-64467.73	-	100.0							
2 집단	-52939.68	9.352	35.8	64.2						
3 집단	-49649.93	8.098	28.2	24.1	47.7					
4 집단	-47488.64	7.678	23.8	20.7	11.8	43.7				
5 집단	-45993.25	7.310	7.1	19.6	22.0	10.5	40.8			
6 집단	-52798.88	-	5.2	16.4	17.3	23.1	13.1	24.9		
7 집단	-44179.06	9.062	6.1	12.7	16.1	21.9	9.8	7.0	26.4	
8 집단	-43614.76	6.335	3.8	13.0	14.9	4.2	17.0	10.7	10.0	26.4

주: 5집단 모형 대비 7집단 모형의 $\ln(\Delta$ BIC) 값은 7.503으로 5집단 모형과 비교해도 모형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모형을 비교한 결과 6집단 모형에서 BIC 지수 -25925.96, $\ln\Delta$ BIC 7.233, 모든 집단에서 표본 비율 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7집단 모형에서는 6집단에 비해 BIC 지수가 -25642.80으로 감소하였으나 $\ln\Delta$ BIC 값이 5.646으로 모형 개선이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7집단 모형에서도 집단별 표본 비율은 모두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개선도와 집단별 표본 비율을 고려했을 때 6집단 모형이 7집단 모형보다 일부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이 7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유형별 패턴 비교를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궤적도 7개 유형을 활용하였다. 7개 집단 모형도 $\ln\Delta$ BIC가 6에 가까운 긍정적인 개선 수준이며, 집단별 표본의 비율도 모두 5% 이상이라는 점에서 7집단 모형이 분석에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 6〉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모형 적합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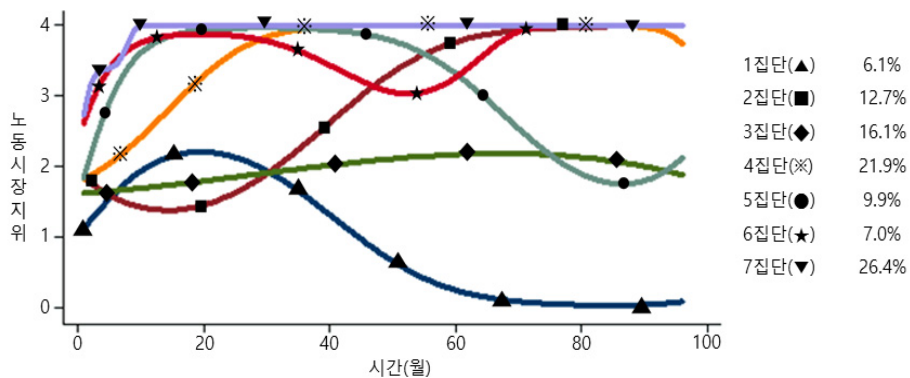
	BIC	ln (ΔBIC)	집단 비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집단
1 집단	-39387.03	-	100.0							
2 집단	-31122.97	9.020	35.0	65.0						
3 집단	-28931.79	7.692	25.8	27.4	46.8					
4 집단	-28224.51	6.561	16.0	21.2	29.5	33.3				
5 집단	-27309.82	6.818	24.2	14.9	14.3	3.4	43.2			
6 집단	-25925.96	7.233	6.4	14.6	11.7	7.2	23.0	37.1		
7 집단	-25642.80	5.646	6.4	11.7	15.1	17.3	6.6	9.6	33.3	
8 집단	-25213.28	6.063	2.6	12.7	15.4	8.5	14.2	3.2	5.6	37.8

3.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집단별 이행 패턴에 기초하여 집단의 명칭을 부여했다. 먼저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살펴보면, 1집단은(▲) 실업상태에서 일부 비임금노동에 진입하지만, 초기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이며, 임시직 형태의 노동도 경험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는 점에서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으로 명명하였다. 2집단(■)은 초기 실직에 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완만하게 노동시장의 지위가 상승하여 졸업 후 약 60개월 이후 상용직에 진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궤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준비형(12.7%)으로 명명하였다. 3집단(◆)은 졸업 이후부터 8년간 비임금근로(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를 비임금근로 유지형(16.1%)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4집단(※)은 2집단과 유사한 이행 궤적을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졸업 후 40개월 이전에 상용직에 진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점에서 단기준비형(21.9%)으로 명명하였다. 5집단(●)은 졸업 이후 초기에 상용직 진입이 이루어지고 40개월부터 노동시장 지위가 감소하여 비임금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5집단(●)을 비임금노동 전환형(7.0%)으로 명명하였다. 6집단(★)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상용직과 임시직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관찰되는데 약 20개월에 상용직에 진입하여 약 50개월에는 임시직에 위치한 뒤 다시 70개월쯤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상용-임시직 반복형(7.0%)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7집단(▼)은 초기에 상용직으로 진입하여, 이 연구의 최종 기간인 96개월까지 상용직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용직 유지형(26.4%)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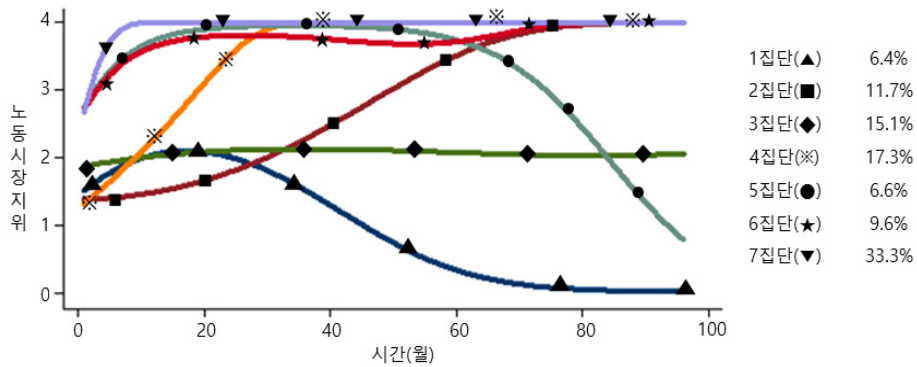
[그림 1]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도 동일하게 7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1집단(▲)은 전체적으로 실업상태에서 임시직 또는 상용직을 경험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6.4%)으로 명명하였다. 2집단(■)은 실업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유형으로 약 70개월 이후 상용직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를 반영하여 장기준비형(11.7%)으로 명명하였다. 3집단(◆)은 대학 졸업 이후부터 연구의 최종 시점인 96개월까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3집단을 비임금근로 유지형(15.1%)으로 명명하였다. 4집단(※)은 초기 실업상태에서 약 30개월 이후 상용직에 진입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기준비형(17.3%)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5집단(●)은 졸업 이후 약 20개월 이후 상용직에 진입한 뒤 50개월 이후부터 노동시장의 지위가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하여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6.6%)으로 명명하였다. 6집단(★)은 임시직에서 점진적으로 상용

직에 진입하는 형태로 임시직에서 시작하여 임시직과 상용직의 경계를 유지하다 약 60개월 이후 상용직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임시-상용직 점진적 전환형(9.6%)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7집단(▼)은 초기에 빠르게 상용직에 진입하여 최종 연구시점인 96개월까지 상용직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용직 유지형(33.3%)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유사한 형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장기준비형, 비임금근로 유지형, 단기준비형, 상용직 유지형이 도출되었으며,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장기준비형, 비임금근로 유지형은 집단의 비율도 1%p 내외로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상용직 진입 및 유지가 원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졸업 이후 초기 기간에서부터 상용직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상용직 유지형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은 26.4%인 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33.3%로 6.9%p 더 높았다. 또한 상용직 유지형의 궤적에서도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은 초기 상용직에 진입하는 곡선이 가파른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계단식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상용직과 임시직을 반복하는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집단의 궤적을 비교해 보면, 지방대학 졸업생들

은 상용직과 임시직의 지위가 물결치는 모양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고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보인다. 넷째, 상대적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이 비임금노동(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 유지형은 지방대학 졸업생이 16.1%,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15.1%로 그 차이가 1%p에 불과했지만 5집단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상용직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형태로 궤적이 표현된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상용직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 방향으로 진입하기보다 비임금노동에 가까운 지위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이행 궤적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이행 궤적의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별 특성 분석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 전공, 취업 사교육, 시험준비, 연령이었다. 결혼과 교육훈련은 기혼자 또는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표본이 전체의 5% 미만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차이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성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속 비율이 높은 집단은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10.2%), 비임금근로 유지형(19.4%), 비임금노동 전환형(12.2%)인 반면, 남성은 단기준비형(26.6%), 상용직 유지형(32.8%)으로 상용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진입하는 유형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남성이 노동시장의 지위를 획득 및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집단별 전공 분포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장기준비형(14.4%), 비임금근로 유지형(20.6%)이었으며, 자연계열은 단기준비형(26.4%), 상용직 유지형(33.7%)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연·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용직에 조기 진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계열은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사교육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표본 수, 집단별 기대표본이 작은 경우 정규성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차이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사교육 변인에 대한 비모수검정에서 검정통계량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취업 사교육을 경험한 졸업생의 수(44명)는 적은 편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비임금근로 유지형(31.8%), 장기준비형(29.5%), 단기준비형(25.0%) 집단에서 취업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상용직 진입을 위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집단과 비임금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취업준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취업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및 취업 관련 시험준비는 비임금근로 유지형

〈표 7〉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별 특성

(단위: 명, 세, ln만 원)

변인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장기 준비형	비임금근로 유지형	단기 준비형	비임금노동 전환형	상용임시 반복형	상용직 유지형	전체	χ^2/F
성별	남성	4(1.5)	34(12.4)	34(12.4)	73(26.6)	20(7.3)	19(6.9)	90(32.8)	274(100)	39.217***
	여성	31(10.2)	39(12.8)	59(19.4)	54(17.8)	37(12.2)	21(6.9)	63(20.7)	304(100)	
전공	인문	20(7.2)	40(14.4)	57(20.6)	53(19.1)	27(9.7)	20(7.2)	60(21.7)	277(100)	34.667***
	자연	11(4.3)	28(10.9)	25(9.7)	68(26.4)	23(8.9)	16(6.2)	87(33.7)	258(100)	
	예체능	4(10.0)	4(10.0)	10(25.0)	6(15.0)	7(17.5)	4(10.0)	5(12.5)	40(100)	
자격	있음	7(5.4)	14(10.9)	26(20.2)	37(28.7)	8(6.2)	7(5.4)	30(23.3)	129(100)	9.072
	없음	28(6.2)	59(13.1)	67(14.9)	90(20.0)	49(10.9)	33(7.3)	123(27.4)	449(100)	
취업 사교육	있음	2(4.5)	13(29.5)	14(31.8)	11(25.0)	2(4.5)	0(0.0)	2(4.5)	44(100)	27.494***
	없음	31(6.7)	55(11.8)	75(16.1)	107(23.0)	39(8.4)	35(7.5)	124(26.6)	466(100)	
시험 준비	있음	7(5.2)	30(22.2)	33(24.4)	29(21.5)	7(5.2)	5(3.7)	24(17.8)	135(100)	32.281***
	없음	28(6.3)	43(9.7)	60(13.5)	98(22.1)	50(11.3)	35(7.9)	129(29.1)	443(100)	
진로 지도	있음	4(5.6)	11(15.3)	13(18.1)	16(22.2)	5(6.9)	6(8.3)	17(23.6)	72(100)	1.891
	없음	31(6.1)	62(12.3)	80(15.8)	111(21.9)	52(10.3)	34(6.7)	136(26.9)	506(100)	
연령		24.9(2.29)	24.7(1.90)	24.8(1.87)	25.4(1.87)	24.4(1.90)	24.5(1.50)	25.2(2.08)	25.0(1.96)	3.101**
가구소득		8.29(0.65)	8.25(0.50)	8.30(0.52)	8.20(0.71)	8.51(0.39)	8.43(0.61)	8.37(0.60)	8.32(0.59)	2.095

주: 1) 취업 사교육 비모수 검정통계량: 349.184***(*p<0.05, **p<0.01, ***p<0.001).

2) 성별, 전공, 자격, 취업 사교육, 시험준비, 진로지도 값은 빈도(비율)를 의미하며, 연령 및 가구소득의 값은 평균(표준편차)을 의미한다.

(24.4%), 장기준비형(22.2%), 단기준비형(21.5%), 상용직 유지형(17.8%)로 취업 사교육과 유사하게 상용직으로 진입이 늦거나 비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에서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서는 단기준비형 25.4세, 상용직 유지형 25.2세로 타 집단이 24세 이내인 것과 비교하여 연령이 많은 졸업생이 상용직 또는 단기준비형에 소속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당 집단에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졸업유예를 통해 상용직에 진입할 준비기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별 차이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전공, 취업 사교육, 시험준비, 연령 변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상용직 유지형(45.9%), 단기준비형(19.9%)인 반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비임금근로 유지형(20.4%),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11.6%),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11.0%)이었다. 지방대학 졸업생과 유사하게 상용직에 빠르게 진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천천히 전환되는 집단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전공 분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인문계열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단기준비형(22.2%),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6.1%)이었으며, 자연계열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상용직 유지형(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비임금근로 유지형(35.9%),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20.5%) 등, 표본의 규모가 작았지만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취업 사교육은 단기준비형(35.0%), 장기준비형(25.0%) 집단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시험준비 변인에서도 단기준비형(24.2%), 비임금근로 유지형(22.7%), 장기준비형(16.7%)에서 관련 경험이 있는 표본이 많았으며, 취업 사교육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장기준비형 24.5세,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 24.3세인 반면, 상용직 유지형이 26.0세, 단기준비형 25.9세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대학 졸업생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유형별 특성을 비교

해 보면, 먼저 대학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변인 종류에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이는 성별, 전공, 취업 사교육, 시험준비, 연령은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행 궤적에서 여성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남성에 비해 불완전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여성 졸업생이 상용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지방보다 낮았지만, 지방 여성 졸업생들은 상용-임시직의 반복, 비임금노동 전환과 같은 불완전 노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모형 적합도 결과

(단위: 명, 세, ln만 원)

변인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장기 준비형	비임금근로 유지형	단기 준비형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	임사상용 잠진적 전환형	상용직 유지형	전체	χ^2/F
성별	남성	3(1.5)	20(10.2)	20(10.2)	39(19.9)	5(2.6)	19(9.7)	90(45.9)	196(100)	53.275***
	여성	21(11.6)	24(13.3)	37(20.4)	26(14.4)	20(11.0)	17(9.4)	36(19.9)	181(100)	
전공	인문	11(6.1)	22(12.2)	21(11.7)	40(22.2)	11(6.1)	18(10.0)	57(31.7)	180(100)	50.165***
	자연	5(3.2)	17(11.0)	21(13.6)	23(14.9)	8(5.2)	15(9.7)	65(42.2)	154(100)	
	예체능	8(20.5)	2(5.1)	14(35.9)	2(5.1)	6(15.4)	3(7.7)	4(10.3)	39(100)	
자격	있음	9(9.2)	14(14.3)	9(9.2)	24(24.5)	6(6.1)	5(5.1)	31(31.6)	98(100)	12.469
	없음	15(5.4)	30(10.8)	48(17.2)	41(14.7)	19(6.8)	31(11.1)	95(34.1)	279(100)	
취업 사교육	있음	4(10.0)	10(25.0)	3(7.5)	14(35.0)	2(5.0)	3(7.5)	4(10.0)	40(100)	23.413***
	없음	18(6.0)	30(10.0)	51(16.9)	49(16.3)	20(6.6)	29(9.6)	104(34.6)	301(100)	
시험 준비	있음	4(6.1)	11(16.7)	15(22.7)	16(24.2)	3(4.5)	6(9.1)	11(16.7)	66(100)	14.323*
	없음	20(6.4)	33(10.6)	42(13.5)	49(15.8)	22(7.1)	30(9.6)	115(37.0)	311(100)	
진로 지도	있음	1(2.1)	8(17.0)	4(8.5)	10(21.3)	2(4.3)	5(10.6)	17(36.2)	47(100)	5.535
	없음	23(7.0)	36(10.9)	53(16.1)	55(16.7)	23(7.0)	31(9.4)	109(33.0)	330(100)	
연령		25.5(2.89)	24.5(2.53)	25.2(2.18)	25.9(1.66)	24.3(2.11)	25.6(1.96)	26.0(1.81)	25.5(2.12)	5.282***
가구소득		8.45(0.46)	8.47(0.62)	8.29(0.63)	8.55(0.52)	8.39(0.83)	8.58(0.46)	8.51(0.67)	8.47(0.61)	1.008

주: 1) 취업 사교육 비모수 검정통계량: 199.768***(*p<0.05, **p<0.01, ***p<0.001)

2) 성별, 전공, 자격, 취업 사교육, 시험준비, 진로지도 값은 빈도(비율)를 의미하며, 연령 및 가구소득의 값은 평균(표준편차)을 의미한다.

대학 전공과 관련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인문 및 예체능 계열보다 상용직 진입 및 유지 집단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용직 진입 및 유지 집단의 비율이 지방대학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게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대학의 경우 상용직 유지형에 포함된 비율이 자연계열 33.7%, 인문계열 21.7%였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연계열 42.2%, 인문계열 31.7%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문계열 지방대학 졸업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했는데 수도권 인문계열 졸업생 중 단기준비, 임시·상용직의 점진적 전환을 경험하는 비율은 32.2%였지만, 인문계열 지방대학 졸업생은 단기준비형이 19.1%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비임금근로 유지형이 20.6%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같은 지방대학 졸업생이라도 자연계열 졸업생은 단기준비형이 26.4%로 인문계열의 19.1%보다 높았고 비임금근로 유지형도 9.7%로 인문계열의 20.6%보다 낮았다.

이러한 부분은 인문계열 졸업생들의 상용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지방대학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 취업 사교육과 시험준비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장기준비형과 비임금근로 유지형에서 모두 취업 사교육 또는 시험준비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에서도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용직 유지형과 단기준비형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변동성과 불완전성이 높았다.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노

동시장 이행 패턴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상용직 진입이 빠르고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이행 궤적도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은 비임금노동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 학생이 수도권 학생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취업, 임금, 정규직, 기업규모 등)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남기곤, 2012; 류장수, 2003; 오호영, 2007; 조희숙·김안나, 2014). 이 연구는 청년들의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궤적 차이의 원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차이를 설명해보면, 오호영(2007)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임금격차가 학생들의 입학 전 수능점수 차이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학교 자체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적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인적자본의 수준이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학교의 교육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자본이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연보라·이승진·장희원(2015)은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입학자본의 수준을 동질화한 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개인의 배경, 대학 위세, 대학 입학 전 특성이 동질한 집단에서도 출신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학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차이는 대학 입학 전 개인의 인적자본, 대학 요인, 더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 및 산업 구조와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와 함께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진입 또는 퇴장하는 유형, 단기-장기적으로 상용직에 진입하는 유형, 불안정한 유형, 노동시장 이탈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차이점으로는 박지애·남춘호(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비정규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유형이 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48개월 동안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96개월 동안의 이행과정을 분

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시/일용직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장기적으로는 상용직, 비임금근로, 노동시장 이탈의 형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미희·홍백의(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 및 고졸 청년들을 함께 분석했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박미희·홍백의(2014)에서 도출된 노동시장 미진입형은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 박미희·홍백의(2014)의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 유지를 불안정노동형으로 표현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 비임금근로 유지형, 비임금근로 전환형,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으로 상용직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 이후에도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비임금노동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여성은 경력 형성 초기부터 남성에게 비해 노동시장 이행이 지체된다는 선행연구(강순희, 2014)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후기 노동시장 이탈형, 비임금근로 전환형의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은 경력단절 등 기혼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강순희, 2014; 권순원·이영지, 2010;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정성미, 2014).

셋째, 계열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지방대학 인문계열 졸업생의 상용직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지방대학의 자연계열 졸업생은 상용직 유지형, 단기준비형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 졸업생은 비임금근로 유지형, 장기준비형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인문계열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원활한 편이었는데, 자연계열의 상용직 유지형 비율이 높았지만, 단기준비형의 경우 오히려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집단에 소속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 비공과계열 학생들이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하며(김민순·정영애, 2012), 노동생애 초기에 이공계열 전공자가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김창환·김형석, 2006).

넷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자격취득 및 진로상담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취득 및 진로상담 등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승규·최기성·임세영, 2014; 박천수, 2010; 이요행·권혜자, 2009)와 일부 상반되는데, 이는 자격취득, 진로상담 및 지도, 교육훈련 등의 고용 관련 활동을 경험한 빈도가 낮았다는 점과 관련 활동들이 졸업 직후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제 언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및 특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의 고용시장 진입과 유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용직 진입이 늦거나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대학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오호영(2007)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낮은 수능점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핵심역량 차이가 감소한다는 진미석(2013)의 연구결과는 개인의 학업성취와 역량 외에도 지역 및 노동구조적 측면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부 시사한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소재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고용 및 직무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NCS 기반 및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및 보상하는 체계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발 및 직무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에 기초한 고용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인재들이 고등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수도권

에 잔류하는 상황(심재현·김의준, 2012)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역 유치 등 지역의 노동시장 개선과 대학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개인의 취업지원 등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 내 특화 및 혁신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질과 규모를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진로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여성은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불완전고용, 노동시장 이탈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대학 인문계열 졸업생 또한 유사한 집단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여성 및 인문계열 등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및 진로지원을 통해 이들이 상용직으로 진입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이행 궤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집단별 표본 규모가 영항요인 등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의 선택과 인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지방 및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317~347.
- 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

- 복지학』 57 (3) : 223~249.
- 권순원·이영지(2010).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업경제연구』 39 (1) : 45~57.
- 김민순·정영애(2012). 「지방대 학생의 취업장벽인식수준 및 관련변인분석 : C 대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 (4) : 163~182.
- 김재희(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 (4) : 127~152.
- 김진주·조민효(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 : 35~65.
- 김창환·김형석(2006).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직업노동시장 성과 : 이공계 위기의 노동시장 원인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 (3) : 1~27.
- 김혜연(2010). 「중, 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 (1) : 233~259.
- 김희삼(2008). 「대졸자의 지역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로 본 지방대학 문제」.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pp.613~645.
- 남기곤(2012). 「대학 진학은 서울로, 합리적인 선택인가」. 『경제발전연구』 18 : 81~114.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 (1) : 1~26.
- 문성숙·노상우(2013). 「대학변인이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1 (3) : 75~94.
- 문승규·최기성·임세영(2014). 「대학취업지원서비스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및 취업 질에 미치는 영향」. 『역량개발학습연구』 9 : 27~50.
- 민현주·이수경(2018).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사회과학연구논총』 34 (2) : 169~194.
- 박미경·김진주·정기덕·조민효(2016). 「중등직업교육 정책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 (2) : 59~93.
- 박미희·홍백의(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 (4) : 21~49.

- 박성재(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65~99.
- 박지애 · 남춘호(2015).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지역사회학』 16: 149~189.
- 박천수(2010). 「대학생의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2): 91~110.
- 심재현 · 김의준(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5: 37~51.
- 연보라 · 이승진 · 장희원(2015).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2): 1~24.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87~118.
- 유정미(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유지영(2016). 「융복합시대 우리나라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 일상적 좌절에 관한 연구 -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43~52.
- 윤미래 · 김태일(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53~185.
- 이승윤 · 안주영 · 김유휘(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 이요행 · 권혜자(2009).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국가자격 취득의 취업 및 임금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95~111.
- 정성미(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2014-6(111): 5~19.
- 조희숙 · 김안나(2014). 「대졸자의 첫 직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대학 특성 요인」. 『교육종합연구』 12(4): 263~280.
- 진미석(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 105~127.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 (4) : 35~61.

최수정·정철영(2010). 「기혼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 (2) : 193~223.

홍성표(2019).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ynes, K., and M. Clarkberg(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 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 : 222~239.

Nagin, D. S., and D. Nagin(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Saloniemi, A., J. Salonen, T. Nummi, and P. Virtanen(2020). “The diversity of transitions during early adulthood in the Finnish labour market.” *Journal of Youth Studies*, pp.1~20.

Sun, S., and F. Chen(2017). “Women's employment trajectories during early adulthood in urban China: A cohort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68 : 43~58.

Weisshaar, K., and T. Cabello-Hutt(2020). “Labor Force Participation Over the Life Course: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jectories on Wages and the Gendered Payoff to Employment.” *Demography*, pp.1~28.

Analyzing the trajectory of youth's labor market transi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graduates from the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Hong Sungpyo · Lim Hanrye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status of youth in the labor market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youth employment by categorizing and comparing the trajectory of labor market transition according to the university's location. Economic status data of 8 years(96 months) of 955 graduates(2007~2011)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youth panel was used to analyze the trajectory of labor market transition. The method of analysis used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and difference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was higher in volatility and incompleteness than those in metropolitan areas. Relatively, the proportion of graduates from the metropolitan area entering and maintaining regular jobs was high, and in the long run, the ratio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to non-wage labor was high. Second, regardless of where the university was located, women were in poor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Women were less likely to enter regular jobs than men, or were converted into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or non-wage labor after entering. Third, in the transition of labor market status by majors, entry into regular jobs by graduates of humanities from local universities was limited.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rtificate acquisition and career counseling in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Reinforcing institutional approach to promote entry and maintenance of labor market for local university graduates, improving local labor market and facilitating linkage with universities, and customized employment and career support for women and liberal arts students.

Keywords : location of university, local university, transition of labor market,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